RDA에 나타난 이용자 과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r Task in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이 경 호(Kyung-Ho Lee)**

〈 목 차 〉

Ⅰ. 서 론
Ⅱ. RDA의 구조와 FRBR
1. RDA의 탄생배경
2. RDA의 구조
3. RDA에서의 FRBR, FRAD
Ⅲ. RDA 사상으로서 이용자 과업
1. RDA에서 이용자 과업이란 무엇인가?
2. FRAD에 의한 이용자 과업의 실현
3. FRBR에 의한 이용자 과업의 실현
Ⅳ. 이용자 과업 실현수단으로 본 RDA의 특징 및 장점
1. RDA의 주요 특징
2. RDA 적용의 장점
Ⅴ. 요약 및 결론

초 록

통본 연구는 미래 서지기술의 국제적 표준으로 등장한 RDA를 대상으로 하여 RDA에서 개발의 목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이용자 과업(user task)을 다룬다. RDA는 FRBR-FRAD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 과업의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용자 과업이란 이용자가 정보탐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발견, 식별, 선정, 입수의 영역과 자원과 관련된 개체(개인, 가족, 단체, 개념 등)의 발견, 식별, 확인, 이해의 두 영역이다. 본 연구는 RDA의 개념모델인 FRBR-FRAD를 통해 RDA에서 어떻게 자원을 개체와 속성, 그리고 관계의 모델로 정의하고 있는지 분석함과 더불어 이를 근거로 RDA가 어떻게 이용자과업을 지원하고자 하는지 그 방법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키워드: 자원기술과 접근, RDA, 이용자 과업, 이용자 요구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user task that is the goal of development of RDA(Resource Description & Access),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future bibliographic description. RDA seeks to implement the user task based on FRBR-FRAD model. User task could be composed of two areas: (1) find, identify, select, and obtain of bibliographic resources in information seeking and (2) find, identify, clarify, and understand of entities related to resources (i.e., person, family, corporate, concept, etc.). This research analyzes how the resource is defined with entity, attributes, and relationship in RDA based on the conceptual model of FRBR- FRAD. And this finally shows the ways of supporting user task in RDA.

Keywords: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RDA, User task, User need

* 이 연구는 2009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로 연구되었음.
**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hlee@daegu.ac.kr)
• 접수일: 2012년 2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2년 2월 28일 • 최종심사일: 2012년 3월 23일

www.kci.go.kr

Ⅰ. 서 론

인류는 오래 전부터 인간의 사상을 표현한 문헌을 수집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서지정보를 기술하여왔다. 이러한 서지기술의 일들이 바로 목록이다. 목록의 기원은 기원전 283년 프톨레미(Ptolemy)에 의해 설립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까지 소급된다. 그러나 이 당시의 목록은 문헌의 검색수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증거의 수단으로써, 즉 재산목록의 수단으로 단순히 서지정보를 기술한 것으로 오늘날의 목록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후 1565년 게스너(Konrad von Gesner)에 의한 현대적 목록개념인 *Bibliotheca Universalis*의 출현과, 1839년 파니찌(Anthony Panizzi)에 의한 대영박물관 목록규칙의 등장은 검색수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목록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목록이란 하나의 기관이나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는 만큼 통일성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961년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가 주최한 국제목록원칙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에서 '파리원칙'을 채택하여 목록의 기능을 정의하고, 각국의 목록규칙은 파리원칙에 근거하여 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1967년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발행한 AACR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과 1978년의 AACR2는 현대적 의미에서 전 세계 도서관 목록의 대부 역할을 하였고, 각 국가는 이 AACR2를 기반으로 자국의 목록규칙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AACR 이후 도서관 목록에서의 큰 변화는 MARC (Machine Readable Cataloging)의 출현으로 수작업 목록이 자동화 목록환경으로 바뀌었다는 점과 1974년 서지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ISBD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의 제정이다. ISBD의 탄생은 무엇보다 MARC에 의한 자동화목록의 서지기술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일반적인 문헌의 서지기술 표준화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MARC은 초창기에는 도서관 목록카드의 수작업 작성을 대체할 목적으로 각 도서관에서 목록데이터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들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목록카드를 인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뒤이어 상업용 CD 형태의 목록 데이터베이스가 생겨나고 개별도서관에서는 이를 구입하여 목록 할 데이터를 다운받아 목록의 편의를 도모할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MARC의 데이터는 목록카드에 기록되는 데이터를 필드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되, 입력순서 또한 목록카드의 기술순서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과 부합하지는 않는 면이 있었다. 그 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MARC은 목록카드 인쇄라는 초기의 고유한 목적은 사라지고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을 위한 정보검색용 데이터베이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196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는 엄청난 사회적 환경변화와 함께 출판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출판물 및 전달 수단이 생겨났고,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방식도 네트워크형

www.kci.go.kr

온라인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RDA(Resource Description & Access)는 이처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위해 고안한 서지기술의 표준으로 나타난 산물이다. RDA는 AACR2보다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오로지 이용자에게 초점을 두고 이용자 과업(user tasks)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RDA에서는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목록(cataloging)이나 서지기술(bibliographic description)과 같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RDA의 표제에 사용되는 용어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어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다.

특히 새로 만들어진 RDA는 네트워크화 된 웹의 환경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MARC와 같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나 운용기술을 사용하여 서지데이터를 기록하고, 축적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또한 RDA에 기록되는 데이터는 웹의 환경에서 데이터를 보고 이용가능토록 하는 메타데이터 요소의 측면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RDA는 도서관을 초월하여 전통적 자료에서부터 디지털 자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유형의 자료도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RDA를 적용한 서지기술이 멀지 않아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도서관 목록과 서지기술의 표준으로 탄생한 RDA를 대상으로 RDA의 틀(framework)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이용자 과업(user task)인 발견(find), 식별(identify), 선정(select), 입수(obtatin)에 대해 이들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이들 용어의 바탕에 근거하고 있는 RDA의 기본사상을 확인해 봄으로써 RDA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자 과업을 지원하고자 하였는지 그 방법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RDA의 구조와 FRBR

1. RDA의 탄생배경

RDA의 탄생 배경은 바로 FRBR의 탄생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RDA를 논하기 위해서는 FRBR의 탄생배경을 간과할 수 없는 바, 먼저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FRBR의 개념 모델은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의 연구진 보고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초 IFLA 목록분과(Cataloging Section)에서는 서지레코드의 기능적 요건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대표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연구진은 1997년 최종보고서를 IFLA 상임 목록위원회(IFLA's Standing Committee on Cataloging)의 승인을 얻어 1998년 *Functional Requirement of Bibliographic Records : Final Report* [1]로 출판하였다.

1)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unctional Requirements for*

www.kci.go.kr

연구진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서지레코드를 이용할 이용자들의 요구를 위해 서지레코드에 기록할 데이터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조화 된 틀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개별국가의 국가서지기관에서 만드는 레코드에 대해 기능적인 기본수준을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 최종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이 개발한 개체관계 모델(entity relationship model)에 대한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어 IFLA는 FRBR를 확장하고, 전거 데이터(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FRAD)와 주제전거 데이터(Functional Requirements for Subject Authority Data, FRSAD)를 포함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진을 구성하였는데 이것이 The Working Group on Functional Requirements and Numbering of Authority Records(FRANAR)이다. 이 FRANAR가 FRAD모델을 개발하였고, 2009년에 최종보고서가 출판되었다. FRSAD는 지금도 개발 과정에 있다.

IFLA에서 발표한 FRBR는 AACR2의 후속 개정판을 개발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78년 개정되어 여러 번 개정된 AACR2는 전통적인 카드목록의 잔재를 탈피할 수 없었으며, 목록규칙 대부분은 자료형태별로 목록규칙이 만들어진 것으로 규칙자체에 철학이나 이론이 결여된 부분이 많았다. 이에 1997년 토론토에서 개최된 'AACR의 원칙과 미래의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inciples and Future Development of AACR)에서 많은 사람들이 AACR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AACR 개정위원회(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는 기존의 AACR2와은 다른 접근법으로 새로운 목록규칙을 개발하기로 하기로 하였고, 2007년까지 새로운 판인 'AACR3 :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란 이름으로 발행하기로 하였다.[2] 그러나 최근에 와서 영미목록규칙 개정 합동조정위원회와 영미목록규칙대표위원회가 AACR을 대신할 규칙으로 *Resource Description & Access*로 표현하여 공표하고 2010년 인쇄자료로 출판함에 따라 RDA가 국제적인 표준서지기술 규칙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2. RDA의 구조

RDA는 AACR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여러 사용법(instru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RDA는 새로운 표준의 모양이나 구조, 내용을 정의하는 이론적인 틀에 바탕을 두고 있다. RDA에 반영된 핵심은 FRBR와 FRAD라고 하는 2개의 개념모델이다. FRAD는 FRBR의 확장모델 즉, FRBR 모델의 실현을 위해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 두 개의 모델은 서지정보를 조직하고 이용하는 서지세계(bibliographic universe)를 반영하고 있다. 이 모델은 이용자들이 정보를 찾는 과정에 알고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Munich: Saur, 1998). 〈www.ifla.org/en/publications/functional- requirements -for-bibliographic-records〉 [cited 2012. 1. 15].

2)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AACR. *Annual Report* 2004.

www.kci.go.kr

자 하는 이용자 과업(user task)과 다양한 서지정보와 전거데이터를 통해 이용자들이 성공적인 정보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FRBR와 FRAD는 이용자들이 보다 정보탐색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론적이고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RDA는 첫 페이지 첫 문장에서 '자원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표현하는 일종의 지침과 사용법[3]'(a set of guidelines and instructions on formulating data to support resource discovery)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원발견을 지원하기 위해'라고 표현한 부분은 RDA의 속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메시지이다. 이것은 RDA가 이용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설계된 표준이라는 점과 자원발견 과정에 이용자들이 겪는 일이나 행위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RDA의 모든 규칙은 이용자와 이용자들이 정보탐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련된다. 이러한 이용자 과업 즉, 정보탐색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FRBR와 FRAD 모델에 기초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RDA의 시작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다.

RDA는 FRBR와 FRAD 모델에서 표현된 이론적인 틀을 설명하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 이론적 틀은 서지데이터와 전거 데이터에 관한 새로운 사고를 이루는 토대를 이루고 있다. RDA는 FRBR과 FRAD 개념 모델의 적용이며, RDA 자체는 개념모델이 아니고 FRBR와 FRAD 모델에 바탕을 둔 일종의 실무 지침서이고 사용법이다. RDA의 전개구조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론
제1부: 구현형과 개별 자료의 속성기록
제2부: 저작과 표현형의 속성기록
제3부: 개인과 가족, 단체의 속성기록
제4부: 개념과 대상, 사건, 장소의 속성기록
제5부: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 개별 자료 간의 1차 관계 기록
제6부: 자원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기록
제7부: 저작의 주제 기록
제8부: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 기록
제9부: 개인이나 가족, 단체 간의 관계 기록
제10부: 개념과 대상, 사건, 장소 간의 관계 기록
부록 A-L

3)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RDA :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0), p.1.

www.kci.go.kr

RDA의 내용목차를 살펴보면 RDA와 AACR2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RDA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개념, 카테고리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바로 FRBR와 FRAD모델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RDA의 바탕 철학은 FRBR와 FRAD의 개념모델이다. 그리고 RDA는 FRBR와 FRAD의 개념모델에 근거하여 여러 부(Section)로 나누고, 각 부는 FRBR 서지개체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처음 네 개의 부는 RDA의 서지개체의 속성기록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5-10까지는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기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개체,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인 FRSAD는 RDA 구조에는 포함되지만 현재는 대부분 빠져있는 상태이며, 향후 개발될 예정에 있다.

3. RDA에서의 FRBR와 FRAD

가. FRBR의 개체(Entities)

FRBR의 개체-관계 모델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는 개체(entity), 속성(attributes) 그리고 개체들 간의 관계(relationship)이다. 먼저 FRBR 개체는 서지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관심 있는 대상으로서 지적 혹은 예술적인 창조의 산물인 그룹1의 개체와, 이들 생산물에 역할을 담당하여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인 그룹2의 개체, 그리고 이러한 지적 혹은 예술적 창조물 혹은 생산물의 주제인 그룹3의 개체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4)]

그룹1 개체: 지적 혹은 예술적 노력의 생산물
개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그룹2 개체 : 지적 혹은 예술적 내용에 책임을 지는 사람
물리적인 생산과 배포 혹은 제1그룹 개체의 관리자
개체: 개인, 가족, 단체

그룹3 개체: 주제
개체: 개념, 대상, 사건, 장소
+ 그룹 1, 2에 있는 모든 개체

4) Chris Oliver. *Introducing RDA : A Guide to the Basics*. ALA Edition(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0), pp.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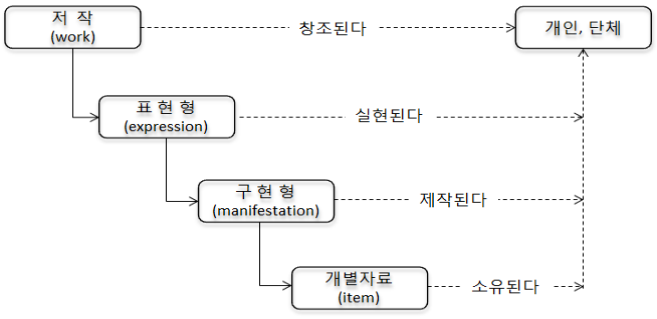
www.kci.go.kr

그룹1의 개체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 구분한다. FRBR 모델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저작을 차별화 하고, 각 용어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정의한다. 또한 모델은 표현형의 개체를 정의하고, 저작과 구현형 사이의 중요한 역할을 나타낸다. 그룹1의 개체는 개별적으로 명확한 대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저작의 명확한 존재는 구현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4개의 개체는 지적, 예술적 창조물에서 이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국면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5]를 가진다.

저작(work) :	명확한 지적 혹은 예술적 창조물
표현형(expression) :	문자-숫자, 악보 혹은 무보(choreographic notation), 음향, 이미지, 사물, 동화상 등의 형식으로 된 저작의 지적 혹은 예술적 실현, 혹은 이러한 형태의 결합
구현형(manifestation) :	저작의 표현형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
개별자료(item) :	구현형의 예시 중의 한 자료

그룹1의 개체에 대한 정의는 이들 4개의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주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1〉는 FRBR 그룹1과 그룹2 개체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그림 1〉에서 그림 자체는 단순한 계층관계로 보일 수도 있으나 개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떤 경우에는 일(一) 대 일(一)의 관계이고 어떤 경우에는 일(一) 대 다(多), 또는 다 대 다의 관계로 나타난다. 하나의 저작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표현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일 대 다의 관계가 된다. 그러나 하나의 표현형은 오로지 하나의 저작을 실현하는 과계로 나타나며, 일 대 일의 관계이다. 표현형은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구현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일 대 다의 관계이다. 구현형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표현형으로 구체화 될 수도 있다. 구현형은 대개 여러 가지 개별 자료로 만들어진다. 개별자료는 한 구현형의 유일한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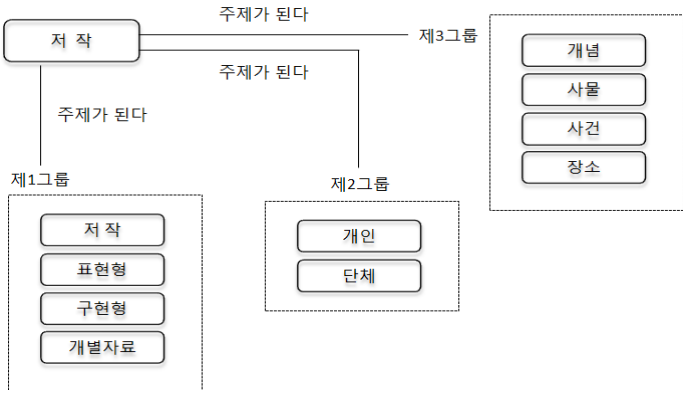


〈그림 1〉 FRBR 그룹1, 2의 개체와 그 관계

5)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RDA :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op. cit.*, pp.0-3.

www.kci.go.kr

그룹2의 개체들은 저작의 창조, 표현형의 실현, 구현형의 생산과 배포에 책임을 지는 개체, 혹은 개별자료에 대한 소유권자이다. FRBR 모델은 개인과 단체 2개의 개체로 구분한다. FRAD 모델은 FRBR 모델에서 정의한 서지 개체를 출발점으로 하여 지금은 개인, 가족,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룹3의 개체는 그룹1의 개체인 저작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실체 군이다. 이 그룹에서는 개념(concept), 대상(object), 사건(event), 장소(place)와 같이 4개의 개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그룹1과 그룹2의 개체도 저작의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2〉[6]에서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저작이 다른 저작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나 단체가 주제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FRBR 그룹3의 개체와 주제와의 관계

나. FRBR의 속성

모든 개체는 각각 일련의 특징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개체는 이용자에게 관심의 주 대상이다. 속성은 같은 유형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추상적인 카테고리와 같다. 개체의 속성은 자원(문헌)을 발견하고, 식별하고, 선정하고, 그리고 입수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속성은 고유한 성질을 가진 본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외적으로 만들어 부여된 것일 수도 있다. 본질적인 속성은 개체 자체를 직접 조사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속성이며, 책의 크기나 표제, 내용의 유형, 출판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외적으로 만들어진 속성은 개체 밖에서 만들어진 경우로서 부여된 식별자와 같은 것이다. 그룹1의 개체별 속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谷口祥一, 緣川信之, 지식자원의 메타데이터, 최석두, 한상길 옮김(서울 : 한울, 2011), p.51.

www.kci.go.kr

저작의 속성 : 저작의 표제, 저작의 형식(소설, 희곡, 시 등의 구분), 저작의 성립일자, 예상이용자, 저작성립의 배경, 연주수단, 조(음악작품), 경위도・분점(지도) 등

표현형의 속성: 표현형의 표제, 표현형의 형식(영숫자, 기호 음표 등), 표현형의 성립일자, 표현형의 언어, 표현형의 수량, 내용의 요약, 표현형의 이용제한, 악보의 유형, 축척(지도적 이미지/대상), 기타표현형의 형식에 대응되는 속성 군

구현자료의 속성: 구현형의 표제, 책임표시, 판・쇄표시, 발행자/배포자, 발행/배포 일자, 수록매체(carrier) 형태, 수록매체(carrier)의 크기나 범위, 기타 구현형의 형식에 대응되는 속성 군

개별자료의 속성 : 개별자료의 식별자(예, 바코드), 개별자료의 출처, 표적/헌정사(기증도서에 찍은), 개별자료의 상태, 개별자료에 액세스 제한 등

다. FRBR에서의 관계

FRBR 모델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은 개체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묘사한다는 점이다. 관계는 이용자들이 자원을 발견하고, 식별하고, 선정하고, 입수하는 이용자의 과업을 수행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지세계를 탐색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계는 개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링크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배열을 가능하게 하고, 자원발견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로를 제공한다. FRBR 모델은 이용자들이 대규모의 목록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탐색할 때 서지적 관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룹1의 개체들 사이의 관계 묘사한다. 일차적으로는 한 저작과 이의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사이의 관계이다. 그룹1의 4개의 개체를 두고 보면, FRBR 모델에서는 동일한 저작을 구현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자원(문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내용과 정도에 있어 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적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자료는 구현형의 결과물이고, 표현형의 구현이며, 한 저작의 실현인 것이다.

저작은 종종 하나의 표현형으로만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와 관례로 볼 때, 저작은 보통 많은 표현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설 〈춘향전〉과 같은 저작은 많은 표현형과 구현형을 가질 수 있다. 몇몇 표현형은 원래 한글로 저술된 것을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이다. 또 다른 표현형은 표현을 다른 형태로 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자나 숫자-기호로 된 것을 음성(spoken word)으로 또는 연극으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개개 표현형은 여러 가지 유형의 구현형으로 발행되기도 하며, 각각의 구현형은 동일한 여러 구현형을 가지기도 한다.

심지어 한 저작이 오직 하나의 표현형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과 표현형의 개체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형은 자원의 내용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묘사하는데 있어 정확성의 정도를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중요한 개체이다. 동일한 표현형을 가진 구현형은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나

www.kci.go.kr

지만 발행일자나 수록면수(외형)에서 차이가 난다. 다른 표현형을 가진 구현형은 동일한 저작에 관련된 것이기에 서로 관련은 있지만, 저작의 실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개정판의 경우, 같은 저작을 실현한 것이지만, 표현형이 동일하지 않으며 내용적으로도 약간 다르다. 번역 또한 똑같은 내용을 실현한 것이지만, 사용된 모든 단어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영화대본이나 영화로 실현한 것은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원저작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저작이 된다. 그러나 원저작과 다른(different) 저작이 되는 셈이다. 영화대본은 변형의 관계이고, 영화는 개작의 관계이다.

Ⅲ. RDA 사상으로서 이용자 과업

1. RDA에서 이용자 과업이란 무엇인가?

RDA의 서론 첫 페이지 목적과 적용범위(0.0)에서 RDA는 '자원발견을 지원하기위해 데이터를 체계화하는 것에 관한 일련의 지침과 사용법'이라고 기술하면서 자원 기술에 있어 RDA를 사용하여 기술된 데이터는 이용자 과업(user tasks)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용자 과업이란 발견(find)-식별(identify)-선정(select)-입수(obtain)로 아래와 같이 정의[7]된다. RDA에서 의미하는 이용자 과업(tasks)이란 국가서지나 도서관 목록을 탐색하거나 이용할 때 이용자에 의해 행해지는 일반적인 일, 즉 정보탐색 및 입수과정에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발견(find) - 예) 이용자가 제시한 탐색기준에 일치하는 자원을 발견하는 일
식별(identify) - 예) 기술된 자료가 발견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둘 혹은 그 이상의 자원 간을 구별하는 일
선정(select) - 예) 이용자의 요구에 일치하는 적합한 자원을 선택하는 일
입수(obtain) - 예) 기술된 자원을 입수하고 접근하는 일

이러한 이용자 과업에 해당되는 각 개념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발견(find)이란 이용자가 행하는 이용자 과업의 최초 행태로서 대규모 목록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자가 탐색어를 입력하여 검색된 결과에서 이용자가 제시한 탐색기준에 일치하는 자원을 발

7)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RDA :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op. cit.*, p.1.

www.kci.go.kr

견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용자가 개체의 속성이나 관계를 사용하여 탐색하는 것으로서 검색 대상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자가 설정한 탐색기준에 일치하는 하나의 개체나 혹은 일련의 개체군을 발견하는 일이다.

식별(identify)이란 이용자가 발견한 자원에서 이용자가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용자가 언급한 개체와 탐색된 개체가 서로 일치하는지 식별하는 것이며, 또한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두 개 이상의 개체를 구분하는 것이다.

선정(select)이란 이용자의 요구에 일치하는 적합한 자원을 선택하는 일로서, 이용자가 발견-식별한 다음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자원을 선택하는 일로서 자원의 내용이나 외형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체를 선택하는 것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적절하지 않은 개체를 선택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입수(obtain)란 발견-식별-선정 다음으로 행하는 일로서 이용자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는 일이며, 개체에 접근하여 입수하는 일이기도 하다. 입수의 방법으로는 구입, 대출, 전자적 접근 등이 있다.

또한 RDA는 개인, 가족, 단체, 개념 등의 개체에 대해 이들의 관계를 기술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용자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8]되어 있다고 정의한다.

발견(find) - 예) 특정 개체와 그 개체에 관련된 자원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는 일
식별(identify) - 예) 기술된 개체가 발견한 개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일 혹은 유사한 이름을 가진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체 간을 구별하는 일 등
확인(clarify) - 예)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혹은 기술된 개체와 그 개체로 알려진 이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
이해(understand) - 예) 특정 이름이나 표제 혹은 이름이나 표제의 형식이 왜 개체의 선호 이름이나 표제로 선택되었는지 이해하는 일

특히 자원과 관련된 개체의 기술을 통해 이용자 과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FRAD에 기초하여 개인이나 가족, 단체 등의 개체에 대해 전거제어를 통해 이용자 과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발견(find)은 위에서 언급한 정보탐색과정에서의 이용자 발견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 단체 등의 이름이 본명, 호, 칭호, 약어 등 다양한 표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8) *Ibid.*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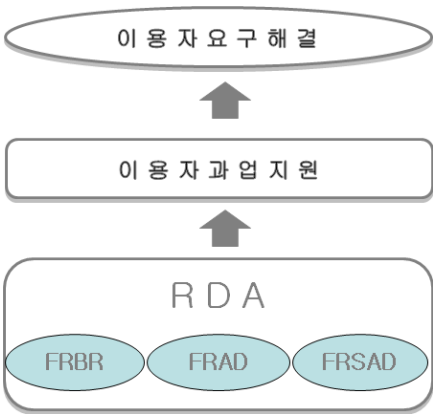
발견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용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사서의 몫(일)이다. 쉽게는 저자명 전거제어를 통해 이들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식별(identify)은 발견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식별은 찾고자 하는 개체를 발견한 후에 유사한 이름을 가진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체 간을 구별하는 일로서 개체간의 사이를 확인하게 하기 전의 단계이다.

확인(clarify)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개인의 이름과 알려진 이름(예, 종교에서 사용하는 이름, 세속적인 이름 등)간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해(understand)란 특정 이름이나 표제, 혹은 이름이나 표제의 형식이 왜 선호이름으로 채택되었는지 이해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접근점을 선택하기 위해 전거데이터를 만든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RDA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용자 과업은 이용자의 정보탐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업과 자원과 관련된 개체에 대해 그 속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과업을 지원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첫 번째는 서지기술을 통한 이용자의 정보탐색 지원이고, 두 번째는 서지정보의 제어를 통한 탐색지원이다. 이러한 이용자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RDA는 FRBR-FRAD 모델을 도입하여 RDA의 기본 틀을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RDA는 처음부터 끝까지 FRBR-FRAD 사상과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이용자 과업을 수행하고자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철학성과 논리성이 기존의 AACR2와 차별화 되는 점이다. RDA에 나타난 이용자 과업은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RDA에 나타난 이용자 과업

www.kci.go.kr

그리고 RDA의 각 부(Section)의 구조를 살펴보면, 곳곳에서 이용자 과업의 지원을 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각 부 내의 장(chapter)은 FRBR와 FRAD 이용자 과업으로 배열되어 있다. 각 부는 일반적인 지침으로 장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이용자 과업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일반적인 지침은 모든 부의 시작부분에 있으며, "기능적인 목적과 지침"이라 부르는 부분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 기능적 목적은 이용자 일에 관련된 설명에 관한 것으로 기록된 데이터와 이용자 일을 온전하게 하는데 있어 데이터의 역할 사이에 연결을 강화해 준다.

예를 들어 제1부의 기능적 목적과 원칙[9]에서 보면, 구현형과 개별자료를 기술하는 데이터는 이용자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이용자들이 설정한 탐색기준과 일치하는 구현형과 개별자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2) 기술된 자원을 식별 (기술된 자료가 탐색된 자료와 일치함을 확신시켜줄 수 있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두 편 혹은 그 이상의 자원을 구별 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3) 수록매체(carrier)의 외형적인 특징의 관점에서 이용자 요구사항에 적절한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
4) 자원을 입수(구입, 대출, 전자적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제9부의 기능적 목적과 원칙[10]에서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 사이의 관련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록된 데이터는 이용자에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1) 이용자의 검색에서 나타난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해 이들과 관련된 다른 개인, 가족, 단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2)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개인이나 가족, 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

2. FRAD에 의한 이용자 과업의 실현

FRAD 모델은 FRBR 모델의 확장으로 FRBR의 모든 개체를 포함하고 있고, 전거통제로 개체를 추가하고 있다. FRBR 모델에서 정의한 그룹1, 그룹2, 그리고 그룹3의 개체는 집합적으로 서지개체(bibliographic entity)라고 부른다. FRAD의 특정 개체는 이름(name), 식별자(identifier), 접근점(access point), 규칙(rule), 그리고 기관(agency)이다. 목록 이용자들이 전거통제와 관련된 개체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들 개체는 정보를 탐색하거나 배열할 때 지원하는 역할을

9) *Ibid.*, pp.1-2.
10) *Ibid.*, pp.9-2.

www.kci.go.kr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FRAD는 제2그룹 개체에 가족(family)를 추가하여 FRBR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FRAD 모델은 개인의 이름과 저작의 표제를 더 이상 속성으로 간주하지 않고 개체로 간주한다. FRAD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체는 다음과 같다.

(1) 인명, 가족, 단체명으로 알려진 이름
(2)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알려져 있는 표제
(3) 개념, 대상, 사건, 장소로 알려져 있는 이름이나 용어
(4) 실제이름, 익명, 종교적 이름, 이니셜, separate letters, 숫자, 기호 등

RDA에서 FRAD 모델을 적용하여 이용자 과업(user tasks)을 실현하고자 한 예를 보면, FRAD의 개체는 지적 혹은 예술적 내용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개인이나 가족, 단체, 나아가 저작의 표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먼저 저작에서 개인이나 가족, 단체는 바로 저자를 의미하며 이용자들이 정보탐색, 특히 발견(find)의 과정에서 많이 이용하는 개체이다.

발견(find)과 식별(identify)에서 이용자는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탐색기준에 일치하는 개체를 찾고 식별하는 것이다. 만약 이용자가 '이광수'라는 특정 저자로 검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의 목록시스템은 '이광수'의 모든 저작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특정인 '이광수'를 여러 명의 다른 '이광수'와 구분해주어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한사람이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경우도 통제를 하여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RDA에서는 저자명 가운데 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을 구분하게 하고, 또 같은 저자라 하더라도 이광수, 춘원과 같이 표기법을 달리하여 문헌상에 나타나는 경우 이용자의 발견사상을 지원하기 위해 저자 전거통제를 통해 접근점이 되는 저자를 선호저자(preferred author)로 정의하고, 이를 서지기술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RDA는 '발견'이라고 하는 사상을 통해 저작을 창조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에 대해 전거통제 하도록 하여 이용자 과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으로 FRBR의 FRAD 모델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RAD 모델에서 개인의 경우는 개인의 이름, 개인의 출생년, 개인의 직함(title), 개인에 관련된 직함의 속성을 기술하도록 하여 개인과 다른 개인을 구분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발견의 과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개인을 상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속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위에 언급한 속성 이외에 성, 출생지, 사망 장소, 개인과 관련된 국명, 거주지, 주소, 소속, 사용언어, 활동분야, 직업, 전기정보, 식별자, 기타 개인을 나타내는 접근점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

www.kci.go.kr

또한 저작의 표제인 경우, 이용자가 〈춘향전〉을 탐색한다고 하면 〈춘향전〉에 관한 모든 표현형과 구현형의 저작이 검색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마땅히 이렇게 검색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서지세계에서 〈춘향전〉에 관한 문헌의 실제는 그 표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적절한 서지통제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춘향전〉의 내용을 다루지만, 표제가 〈월매와 향단이〉, 〈이도령과 성춘향〉, 〈변사또와 월매〉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또 표현형을 달리하여 영어로 출판한 자료도 있을 수 있고, 일본어로 나온 책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유형의 자료가 전부 〈춘향전〉이란 표제, 혹은 주제검색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이용자 과업에서 발견(find)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이용자들이 원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표제의 통제를 통해서 관련저작을 한꺼번에 검색도 가능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표현형의 형식과 표현형의 언어 등을 기술하여 이용자들이 검색된 많은 서지정보에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용자의 과업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목록환경에서 FRAD 모델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자명에 대해서는 저자명 전거통제를 통해서, 표제는 통일표제란 명칭으로 전거통제를 하여 이용자의 정보탐색 요구를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RDA가 지금까지 행하여 온 목록과의 차이점은 목록규칙과 전거통제가 전혀 다른 시스템에서 행하는 종래의 관습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목록은 목록대로 하고 전거통제는 전거통제대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록시스템 자체에서, 쉽게는 MARC 목록데이터베이스와 MARC 형식의 전거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MARC 데이터베이스에서 운용되는 것도 전제하고 있다. 물론 하나의 MARC 데이터베이스 내에 목록과 전거데이터가 혼재 해 있을 지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서지데이터만 검색대상으로 하여 이용자나 사서의 정보탐색요구에 부응하게 하고, 전거데이터만 디스플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RDA는 FRAD 모델을 도입하여 개인과 가족, 단체, 저작의 표제는 전거통제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탐색 행위에서 발견(find)의 과업을 지원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하겠다.

3. FRBR에 의한 이용자 과업의 실현

FRBR 모델은 개체들의 그룹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FRBR 모델에서 나타난 주요 개체는 그룹1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와 그룹2의 개인이나 단체(저작의 저자에 해당), 그리고 그룹3의 저작의 주제이다.

저작에 대해서는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들의 각 속성을 표시하는데 저작의 속성으로 저작의 형식, 표현형의 속성으로 표현형의 형식, 표현형의 언어, 악보의 유형, 지도자료의 축척 등을, 구현자료의 속성으로 발행자/배포자, 발행/배포 일자, 수록매체(carrier) 형

www.kci.go.kr

태, 수록매체(carrier)의 크기나 범위 그리고 개별자료의 속성으로 개별자료의 식별자 등으로 묘사하여 이용자 과업을 지원한다.

또한 FRBR와 FRAD는 다 같이 관련이 있는 다른 저작, 즉 모방이나 각색, 변형, 부록, 계승 등의 사이의 관계도 묘사한다. FRBR의 목적은 서지적 관계의 본질을 식별하는 것이다. FRAD는 이들 관계가 전게데이터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관계를 적용하는데 있어 FRBR는 두 작품사이, 한 저작과 표현형 사이, 표현형 간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FRAD는 이들 관계가 어떻게 도보라(see also)로 표현되고, 주기(note)로 기술되며, 또 통제된 접근점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실제 자원의 목록은 국제목록원칙의 개념설계를 근거로 그룹1의 지적・예술적 활동의 성과를 대상으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네 가지 서지 개체를 반영하여 서지레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서지레코드는 이들 네 개의 개체를 모두 반영하되, 일반적으로 구현형을 반영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현형으로 서지기술을 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네 개의 개체에서 서지레코드가 반영하는 부분, 즉 구현형 이외의 저작과 표현형은 통일표제 전거데이터 부분에서 반영하여 기술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개별자료는 서지레코드에서 분리함으로써 서지레코드의 기술에서 빠지게 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11)]

서지레코드에서 반영하는 부분이외는 모두 전게통제 부분에서 반영하여야 하는 바, 개념, 대상, 사건, 장소를 포함한 그룹3의 주제 개체군에서는 그룹2의 개인, 가족, 단체라고 하는 저자명 전거데이터 부분과 그룹1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모든 개체들을 그룹3의 주제전거통제에 포함시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RDA에서는 주제 전거통제에 관한 내용을 아직까지 계속 연구 중에 있으며, 이를 완성하여 이용자 과업의 지원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FRBR와 FRAD 모델이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개체와 관계의 묘사가 바로 이용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서지세계의 틀이며 구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입각하여 서지정보를 기술할 때만이 이용자의 정보탐색 행위 과정에 이용자들의 요구를 원만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MARC 레코드에서 FRBR 개체와 관계를 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11) 谷口祥一, 緣川信之 지음. 최석두, 한상길 옮김. 전게서, p.62.

www.kci.go.kr

020 _ $a 0025486500	구현형의 식별자
040__ $a DLC$cDLC$dDLC	
05000 $a PS3525.I972 $b Z53 1976	
08200 $a 813/.5/2$aB	
1001_ $a Mitchell, Margaret,$d1900-1949.	개인 -저작을 창조한 사람
24010 $a Gone with the wind letters, 1936-1949 .$l	$a - 저작 $l - 표현형
24510 $a Margaret Mitchell' s Gone with the wind letters, 1936-1949 /$c edited by Richard Harwell.	구현형
260__ $a New York : $b Macmillan, $cc1976.	구현형
300__ $a xxxvi, 441 p., [16] leaves of plates : $b ill. ; $c 24 cm.	구현형
500__ $a Includes index.	표현형
60010 $a Mitchell, Margaret,$d1900-1949 $xCorrespondence.	주 제
60010 $a Mitchell, Margaret,$d1900-1949 $t Gone with the wind.	
650_0 $a O' Hara, Scarlett (Fictitious character)	
650_0 $a Novelists, American$y 20th century $xCorrespondence.	
650_0 $a Historical fiction$x Authorship.	
651_0 $a Georgia$x History$y Civil War, 1861-1865$x Literature and the war.	
7001_ $a Harwell, Richard Barksdale.	개 인

〈그림 4〉 MARC 레코드에서의 FRBR 개체와 관계

무엇보다도 FRBR 모델은 또한 이용자의 관점에서 서지데이터를 보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 목록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다고도 할 수 있다. 정보탐색을 위한 서지기술의 관점을 목록자의 입장이 아닌 대규모 목록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레코드)를 찾는 이용자에 둔다는 것이다.

전거데이터의 영역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지금까지 전거데이터는 사서의 권역으로 간주하였으나, 이를 이용자의 권역으로 수용한 점은 목록을 한 단계 향상 시킨 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 목록의 원리와 방법을 항상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두었으며, 명확한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876년 Charles A. Cutter는 그가 저술한 Rules for a Printed Dictionary Catalog 에서 목록의 목적은 "사람들이 책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도서관이 가진 것을 보여주고, ...책을 선택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고[12] 기술하고 있으며, 1931년 도서관학 5 법칙을 발표한 랑가나단(S. R. Ranganathan)은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보를 조직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모든 도서는 이용되어야 하고, 도서는 만인을 위한 것이며, 모든 책은 독자에게,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12) Charles A. Cutter. *Rules for a Printed Dictionary Catalog*, 4th ed.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p.12.

www.kci.go.kr

도서관은 성장하는 조직이다" [13]라고 강조하였지만, 실제로 수작업의 카드목록에서는 불가능하였으며, MARC에 의한 목록역시 수작업의 환경을 그대로 컴퓨터 환경으로 옮겨 온 것에 불과하여 많은 문제점이 들어났다. 이로 인해 현실 목록에서 한계점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RDA이다. 현재의 사회적 및 기술적 환경은 RDA를 수용할 만한 충분한 기술과 여건을 가지고 있어 이의 실현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본다. FRBR와 FRAD 모델은 이용자에게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관습을 유지하면서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에 기록되는 개개 속성과 관계가 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서지기술에 적용시킨 것이다.

RDA는 이용자의 과업을 지원하기 위해 FRBR와 FRAD 그리고 FRSAD의 적용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이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이용자 과업을 달성 가능하게 한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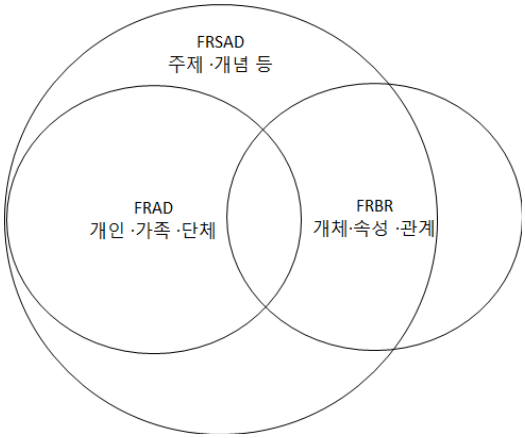
1) 이용자가 제시한 탐색기준에 맞는 자원을 탐색하는 일
2) 특정 저작이나 그 저작의 특정 표현형을 구체화한 모든 자원을 탐색하는 일
3) 특정 저자, 가족, 단체와 관련된 모든 자원을 탐색하는 일
4) 특정 주제에 관한 모든 자원을 탐색하는 일
5) 이용자의 탐색결과 검색된 것에 관련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를 탐색하는 일
6) 이용자가 제시하는 탐색기준에 일치하는 개인, 가족, 단체를 탐색하는 일
7) 이용자 탐색결과 검색된 데이터를 개인, 가족, 단체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내는 일
8) 기술된 자원을 식별하는 일 즉, 탐색된 자원이 기술된 자원과 일치하는지 혹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징을 지닌 둘 혹은 그 이상의 자원을 구별하는 일
9) 데이터로 표시된 개인, 가족, 단체를 식별하는 일 즉, 기술된 개체가 탐색된 개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거나, 혹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체를 구별하는 일
10) 수록매체(carrier)의 물리적인 특성과 수록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형식과 인코딩에 따라 이용자 요구사항에 맞는 자원을 선택하는 일
11) 자원의 유형이나 이용대상, 언어 등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원을 선정하는 일
12) 자원을 입수하는 일 즉, 구입이나 대출 등을 통해서 자원을 입수하거나, 혹은 원격지 컴퓨터에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자원에 접근하는 일
13)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체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
14) 기술된 개체와 개체가 알려진 이름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즉, 이름의 다른 언어형식)
15) 특정 이름이나 표제가 어떤 이유에서 선호이름이나 표제로 선정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일

---

13) S.R. Ranganathan, *The Five Law of Library Science*(Madras, India: Madras Library Association, 1931).
14)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RDA :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op. cit.*, pp.4-5.

www.kci.go.kr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RDA는 이용자 과업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FRBR-FRAD-FRSAD 모델을 근거로 기본 틀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는 〈그림 5〉와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FRBR, FRAD, FRSAD의 관계

〈그림 5〉에서 FRSAD는 아직 개발 중에 있지만 FRBR-FRAD의 완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FRSAD에는 주제에 관한 전거통제 영역이므로 자원의 주제(개념, 대상, 사건, 장소)는 물론 FRAD의 영역 (개인, 가족, 단체도 주제가 될 수 있음), 그리고 FRBR의 일부 영역(저작의 표제와 표현형식도 주제가 될 수 있음)을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용자 과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FRBR-FRAD의 기본 모델뿐만 아니라 FRSAD의 적용이 필수적이며 RDA에서 이용자 과업의 성공적인 지원은 FRBR-FRAD 모델에 의한 FRSAD의 성공적 개발 및 적용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Ⅳ. 이용자 과업 실현수단으로 본 RDA의 특징 및 장점

1. RDA의 주요 특징

RDA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RDA는 디지털형식이 아닌 자원을 조직하는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배포되고 있는 자원의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도 확장 가능한 틀을 제공한다.[15] RDA는 모든 유형의 자료, 모든 내용물의 자료에 대해 내용적 기술을 일관성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으며 확장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 RDA에 기록되는 데이터는 웹의

www.kci.go.kr

환경에서 데이터를 보고 이용가능하게 하는 메타데이터 요소의 측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2) RDA는 FRBR, FRAD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1961년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을 개정한 2009년의 국제목록원칙(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을 반영한 것으로서 표준 자체에 철학적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내용의 전개가 기존의 AACR2보다 논리성과 전개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3) RDA는 이용자 과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RDA는 서론에서 이용자 과업인 이용자의 정보자원 발견, 식별, 선정, 입수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명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FRBR, FRAD 모델을 도입하였으며, 이 모델을 통해 이용자 과업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4) 도서관을 초월하여 모든 유형의 정보관리 기관에서 모든 유형의 자료를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따라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록보존소나 박물관, 출판사 등 모든 유형의 정보관리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5) RDA는 네트워크화 된 웹의 환경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RDA는 관계지향형 데이터베이스 개체-관계모델 기법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맞게 서지기술 개체, 속성, 자료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MARC와의 호환은 물론 메타데이터와의 호환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6) RDA는 저작의 군집(집중)화에 중점을 둔 표준이다. RDA는 이용자가 정보이용 행태에서 요구하는 저작의 군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의 실현이 바로 전거통제이며 FRAD와 FRSAD의 적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7) 목록데이터와 전거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목록은 서지기술과 전거통제는 별도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왔다. 그러나 RDA에서는 서지기술과 전거통제를 하나의 목록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있다. MARC 목록데이터베이스와 MARC 전거통제 데이터베이스가 다 같이 MARC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어 운용하는 방식이다.
8) 표목(heading) 개념이 없어졌다.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의 자료조직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해 온 표목이란 개념이 사라짐과 동시에 저자 전거표목(authorized personal name) 대신에 선호저자(혹은 채택저자, preferred author), 통일표제 대신 선호표제(혹은, 채택표제, preferred title), 자원의 물리적 기술(physical description) 대신에 수록매체(carrier), 내용에 대한 주기(note) 대신에 내용(content) 등으로 사용 용어가 바뀌는 것이다.
9) 서지기술 자원의 내용유형(content type), 미디어 유형(media type), 수록매체 유형(carrier) 등이 추가되었다.

15) *Ibid.*, p.1.

www.kci.go.kr

2. RDA 적용의 장점

이용자 측면에서 본 RDA 적용의 장점[16]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가. 개발의 초점이 이용자에 맞추어져 있다.

RDA의 목표는 이용자를 도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RDA는 FRBR와 FRAD의 개념적 모델을 적용하여 개개의 속성과 관계가 어떻게 이용자 과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나. 탐색과 표현방식을 향상시킨다.

RDA는 서지기술의 내용 표준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기술하여야 하는지 지침과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술할 데이터는 명확하게 식별된 데이터 요소로 구분하여 충분한 데이터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다. 정확하게 정의된 데이터 요소를 생성한다.

RDA에서 기록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AACR2에서 사용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AACR에서 기록하는 데이터는 개별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비하여 RDA는 수록매체 기술부분에서 AACR2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탐색과 네비게이션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관련정보를 함께 배열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정보탐색 결과 관련 자원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정보를 군집화 할 수 있다. 또한 검색된 결과의 집합 내에서 자원간의 관련성을 식별하여 군집하고 배열한다면 보다 이상적이다.

마.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지금의 AACR2는 국제적인 규칙이었지만, 명확히 영미중심의 서지기술 규칙이었다. 그러나 RDA는 영미 중심이 아닌 국제적 표준으로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AACR2는 모든 종교적 성경의 접근점 중에서도 성서(Bible)에 치중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예이다. 그러나 RDA는 모든 종교적 성경에 대해서는 동등한 조건에서 취급하고 있어 차별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집단 간의 정보교환이 용이해지고, 자관 이외의 외부 도서관과의 정보교환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

16) Chris Oliver, *op. cit.*, pp.91-103.

www.kci.go.kr

바. 서지기술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다.

AACR은 원래 카드 목록의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규칙이었다. 카드목록은 3 × 5 인치의 좁은 목록카드에 필요한 서지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단어 대신에 약어의 사용이 많아 이용자보다는 사서를 위한 규칙이었다. 따라서 기록된 서지정보는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RDA는 서지기술에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에 기술된 그대로 서지기술을 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서지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DA는 FRBR, FRAD 모델을 바탕으로 서지개체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이 이 이 이 이태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FRBR 모델은 개체-관계 모델로서, 지식세계를 개체와 속성,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묘사하여 이용자의 과업, 즉 이용자의 정보탐색과정을 지원하는 모델로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RDA는 이러한 이용자 과업의 내용으로 발견(find)-식별(identify)-선정(select)-입수(obtain)로 정의하여 이용자들이 국가서지나 대규모의 도서관 목록을 탐색할 때 이용자에 의해 행해지는 일반적인 일을 지원하기 위해 RDA을 설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용자 과업에서 발견(find)이란 이용자가 설정한 탐색기준에 일치하는 자원을 발견하는 일이며, 식별(identify)이란 기술된 자료가 발견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둘 혹은 그 이상의 자원 간을 구별하는 일이며, 선정(select)이란 이용자의 요구에 일치하는 적합한 자원을 선택하는 일이며, 입수(obtain)란 기술된 자원을 입수하고 접근하는 일을 의미한다.

또 전거데이터와 관련한 이용자과업으로 발견(find)-식별(identify)-확인(clarify)-이해(understand)로 정의하면서 개인, 가족, 단체, 개념 등의 개체에 대해 이들의 관계를 기술함으로써 이용자 과업을 지원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과업의 내용은 특정 개체와 그 개체에 관련된 자원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는 일(find), 기술된 개체가 발견한 개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일과 유사한 이름을 가진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체 간을 구별하는 일(identify),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체들 간의 관계를 명백히 하는 일 혹은 기술된 개체와 그 개체로 알려진 이름 사이의 관계를 확인(clarify) 하는 일, 특정 이름이나 표제 혹은 이름이나 표제의 형식이 왜 개체의 선호이름이나 표제로 선택되었는지 이해(understand)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자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RDA는 FRBR-FRAD 모델을 도입하여 RDA의 기본 틀을 설계하고 있다. RDA는 FRBR 모델을 반영하여 개체의 구분을 예술적인 창조의 산물로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개체, 이들 예술적 창조물에 책임을 지는 개인

www.kci.go.kr

이나 가족, 단체의 개체, 그리고 이들 지적 혹은 예술적 창조물의 주제로서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개체로 구분하여 이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RDA의 설계 틀이다.

그리고 실제의 서지기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RDA를 설계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바는 Ⅲ. 3)에서 기술한 바와 같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바로 이용자 과업이다. 일반적으로 정보탐색을 하는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요구는 탐색기준에 맞는 자원을 찾는 일에서부터 특정저작에 관련된 모든 자원을 찾는 일, 특정 저자에 관한 모든 자원을 탐색하는 일, 특정 주제에 관한 모든 자원을 탐색하는 일, 탐색결과를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 탐색하는 일, 기술된 자원을 식별하는 일, 수록매체(carrier)의 물리적인 특성과 수록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자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일, 자원의 유형이나 이용대상, 언어 등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이다. RDA에서 이용자 과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저작에 관련된 모든 자원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의 개체를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으로 구분하여 개체화하고 서지기술에 반영하여 해결하였다.

둘째, 특정 저자에 관한 모든 자원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FRBR-FRAD 모델에서 FRAD에 기초하여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해 전거통제를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셋째, 특정 주제에 관한 모든 자원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RDA는 FRSAD를 적용한다. 아직까지는 개발의 단계이나 FRSAD에는 개념, 대상, 사건, 장소를 포함한 일반주제와 FRBR의 개체인 저작과 표현형, 그리고 FRAD의 개체인 개인, 가족, 단체 등에 대해 전거통제를 하여 이용자의 주제 탐색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넷째, 탐색결과를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 구분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을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자관 소장정보의 속성임)로 개체화 하여 서지기술에 포함시키되, 저작과 표현형의 개체는 전거데이터 영역에 포함하여 서지기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기술된 자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원의 유형을 기존의 GMD(General Material Designation) 대신 media type(오디오, 비디오, 마이크로폼 등), carrier type(핌름 릴, 슬라이드 등), content type(카토그래픽, 스틸이미지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섯째, 수록매체(carrier)의 물리적인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여 수록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자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일곱째, 서지기술 내용에 자원의 유형이나 이용대상, 언어 등을 기술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요구에 적합한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谷口祥一, 緣川信之. 지식자원의 메타데이터, 최석두, 한상길 옮김. 서울 : 한울, 2011.

박진희. "RDA와 KCR4의 기술규칙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111-138.

이미화.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 변화에 따른 KCR4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8권, 제1호(2011.3), pp.23-42.

이미화. "MARC 데이터의 RDA 저작 및 표현형 요소 분석을 통한 한국목록규칙 및 KORMARC의 고려사항,"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6), pp.251-272.

정옥경. "RDA의 접근점제어데이터의 지침과 지시에 대한 연구," 인천전문대학논문집, 제51집(2009), pp.344-362.

조재인. "RDA 구현 시나리오와 서지 제어의 장래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09. 9), pp.85-105.

Cutter, Charles A. *Rules for a Printed Dictionary Catalog*, 4th ed.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Munich : Saur, 1998. 〈www.ifla.org/en/publications/functional-requirements-for-bibliographic-records/〉 [cited 2012. 1. 15].

IFLA Working Group on Functional Requirements and Numbering of Authority Records(FRANAR), *Functional Requirements of Authority Data : A Conceptual Model*. Munich : Saur, 2009.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RDA :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0.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AACR. *Annual Report* 2004.

Library of Congress. *RDA refresher training at LC : Overview, core elements, reminders, and changes: sessions for former testers Information*. 〈http://www.loc.gov/aba/rda/Refresher__training__oct__2011.html〉 [cited 2011. 12. 10].

Library of Congress. LC *RDA Refresher Training: Exercise Information*. 〈http://www.loc.gov/aba/rda/Refresher__training__oct__2011.html〉 [cited 2011. 12. 10].

Oliver, Chris. *Introducing RDA : A Guide to the Basics*. ALA Edition.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0.

www.kci.go.kr